

- 2019 한발제일교회 사생결단 기도회 2/14 - 죄의 종 VS 의의 종

15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0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로마서 6:15-20)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23-24)

1. 마음의 법, “인간적 힘과 능력으로 죄의 법을 싸워 이기고자 하는 것”

A.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공간으로서의 “새 영”을
주시고, 또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26-27)

B.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고,
그 법에 따른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C. 문제는, 마음으로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자기 인간적 방법과 능력이 동원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D.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면서, 선한 것을 사모하게 되었고,
순종하고픈 마음까지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길의 시작일 뿐입니다.

E. 하고 싶어진 선한 사역이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지 아닌지,
만약 허락하신 것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과 때에 일하실
것인지를 매 순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F. 선한 사역의 계획, 방법, 결과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지는 더 큰 사역의
전 과정에서 타락한 본성의 지배로 인해 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G. 종종 사역의 결과를 놓고 보자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역 결과에 명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마음의 법만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A. 타락한 본성에 “새 영”이 창조되어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B. 허나, 아직도 죄의 힘과 지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C.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부드러운 마음이 죄의 지배를 당해서, “자기 인간적
능력과 힘”으로 선한 사역을 계획하고 이루고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D.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E. 죄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권세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 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1-2)

3.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 16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16)

- A. 구원을 얻지 못한 이들에게는 “의의 종”이 될 기회가 없습니다.
오직 “죄의 종”으로의 길 밖에 없습니다.
- B. 구원을 얻은 이들에게만,
“죄의 종”으로서의 길에서 “의의 종”으로의 길로 인도되어질 수 있습니다.
- C. 구원을 얻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자기 인간적 능력과 힘”에 따르게 되어 아무런 열매를 보지 못하게 될 때, 구원 이후의 삶에서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 D.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법, 즉 선한 것을 추구하며 누릴 것이라는 인간적 방식과 방법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듣지 않고 죄의 종으로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4. “**죄의 종**”을 벗어나는 길은, **의**에게 종으로 내어 주는 길 뿐입니다.

- A. 의에게 종으로 내어 준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B.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 C. 어떤 선한 사역이든지 간에, 어떤 삶의 결정이든 선택이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며,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매사에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 D. 성령 충만, 즉 성령의 지배를 얼마만큼 받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 E. 의의 종이 되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지배하지 못합니다.

- 20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로마서 6:20)

- 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아래에 있음이라
- 15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14-15)